



## 글쓰기교실 활용법에 대하여

• • •  
곽 귀 병  
사회학과  
박사과정

필자의 전공과 역할을 고려하면, 훌륭한 사회과학을 어떻게 써야 할지 논의해야 하는 지면 같기는 하지만, 좋은 사회과학 리포트 쓰는 법은 글쓰기 교실의 연구노트가 2종이나 있다. 덧붙일 말도 없이 훌륭한 글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글쓰기교실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많은 학생들이 상담실에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온다. 자신의 글이 어딘가 틀림없이 잘못되었으리라 믿고 있고, 종종 어떤 학생들은 그 잘못이 자신의 인격적 결함 등과 같은 모종의 하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방문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맞춤법이 틀렸네요.”라는 단순한 말에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일 이유는 없지 않을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만든 상담원이 훨씬 더 죄송하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꾼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자괴감이 든다.

아직 한참 젊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좋은 어른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꾼대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꾼대가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다 안다.”고 말하면서 자기식대로만 세계를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꾼대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한 가지 뜻은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고, 다른 한 가지 뜻은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온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긴장하게 된다. 늙으면 별 수 없이 꾼대가 될진대, 선생님까지 하게 되면 더 무시무시한 꾼대가 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고백하자면 다행히도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꾼대가 될 가능성은 줄었다. 아차. 이런데 상담 연구원을 해도 되는 것일까? 그래도 애써 변명하자면 대학교에서 머물며 많은 글을 썼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축구하러 온 사람이 골키퍼



도 아닌데 공을 잡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말해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종종 헷갈리긴 하지만, 오프사이트도 하면 안 되고, 던지기를 할 때 두 발이 땅에 붙어야 한다는 조금 어려운 규칙들도 안다.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지 이야기는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스스로 연구원의 자격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은 그럭저럭 많은 글들을 소위 ‘말아 먹었다’는 것이다. 고백하자면 나는 누구보다 글을 늘 오래 붙잡고 쓰는데(지금 쓰는 글도 그렇다), 그렇게 기껏 나온 글은 장고 끝에 약수인 경우가 태반이라, 표현도 거칠고,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논증도 부실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글은 꼭 주변의 친구, 선후배, 선생님들에게 보여 왔다. 그렇게 보여주면 다양한 반응이 온다. 물론 표현이 거칠고, 맞춤법이 틀리고, 논증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핵심이다.

이런 미숙함이 상담원의 자격과 무슨 상관일까? 글쓰기교실 상담을 하다 보니 나에게 조언했던 이들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들도 사실은 실패자다. 나 못지않게 수많은 실패작들을 써왔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글에서 실패를 발견한다면, 아마도 그 실패가 익숙하기 때문이고, 그건 곧 자신이 늘 해온 실수나 잘못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타인의 글에 대해서 늘 자신이 들어왔던 말을 하게 된다. 많이 실패하다 보면 덜 실패하는 법에 대해 말할 수 된다. “여기는 맞춤법이 틀렸고, 저기는 표현이 어색하고, 사실 좀 논증도 부실하네요.”

그러니까 자주 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필자의 이야기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터이니, 훌륭한 작가들도 수도 없이 망했다는 점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피에르 바야르가 쓴 『망친 책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읽어보면 프루스트 같은 훌륭한 문학가들조차 대단히 형편없는 작품들을 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불멸의 작품들을 남긴 이들조차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라 하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썼다. 제대로 쓸 시간이 없던 경우도 있었고, 돈 때문에 쓰기 싫었던 글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자아도취에 심하게 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다 망했다. 심지어 이 책을 쓴 바야르도 수도 없이 망했을 것이다. 그런 끝에 괜찮은 글을 썼다. 그게 핵심이다.

필자가 글을 말아먹든, 대문호들이 눈을 괴롭히는 글을 쏟아내었든 간에, 본인의 글이 망하면 안 된다. 그게 핵심이다. 엉뚱한 소리를 하면 글쓰기는 사실 사랑고백과 좀 비슷하다. 글쓰기교실 연구노트 같은 글쓰기 책들은 연애지침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글쓰기교실 연구노트를 꼼꼼히 읽어보면, 고백할 때 무슨 짓



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대충 알 수 있다. 그래서 대충 무슨 말로 어떻게 고백할지 계획해봤는데, 연애 지침서만 읽었을 때는 이게 팬찮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글쓰기와 사랑고백은 여기서 조금 다르다. 글쓰기는 미리 연습해서 실패해 볼 수 있다. 그 사람 앞에서 할 사랑고백, 연구원 앞에서 두서없이 내뱉을 수 있다. 그 사람 앞은 아니다. 그 사람은 아직 당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직 교수님께 과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민 상담의 많은 경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말하지 못 하다가, 어떠한 계기로든 말하다 보면 자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깨닫게 된다. 최소한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

더 놀라운 건 상담자가 그 사람을 꽤나 잘 알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상담자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예전에 좋아해서 그 친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SNS 스토킹해서 취향 조사라도 해준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면, 자신 있게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다. 좋지 아니한가? 필자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아서 한스럽다.

아니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부끄러운 꼴을 보여야 하는가? 언제까지 어리바리하며 제 3자에게 고백하는 말에 조언을 받아야 하나? 처음은 누구나 어설플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말 잘 하는 사람들에게도 코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글쓰기는 스포츠와 닮아 있다. 400개의 홈런을 치고 난 후에도 더 많은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코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스윙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스윙하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코치는 항상 필요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다. 필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데, 사회학이 주는 보편적인 교훈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당신 탓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다. 시민사회, 정부, 세계화, 우주 중에 무언가 하나가 잘못 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혼자 끙끙 대기보다는 사람을 만나면 길이 보인다.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잘못되지도 않았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잘 썼다고 믿든, 못 썼다고 믿든 뭐라도 일단 쓰고 나면 글쓰기교실로 오시라.



## (예제1, 21쪽)

우리의 학교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을 주입하는 것에 치우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인간이 지닌 자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전인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을 부인할 수 없으며’ 와 ‘~고 볼 수 있다’는 표현이 문장을 늘어지게 한다. ‘치우쳐 있으며’, ‘못하고 있다’로 단정적으로 써야 문장이 깔끔해지고 주의 · 주장이 분명해진다.

→ 우리의 학교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을 주입하는 것에 치우쳐 있으며, 인간이 지닌 자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전인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 (예제2, 78쪽)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올려야 한다.

위상(位相)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로, ‘올리다’ 보다 ‘높이다’, ‘강화하다’가 잘 어울린다.

- 1.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2.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 (예제3, 95쪽)

수험생들이 변화가 많은 입시 환경과 다양한 입시 전형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어 ‘수험생들이’ 와 서술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 거리가 멀어 읽기에 불편하고,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는다.

→ 변화가 많은 입시 환경과 다양한 입시 전형 속에서 수험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위 책에서 글쓴이는 ‘문장의 십계명(十諫命)’을 제시하는데, 글쓰기 지도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공감되는 바가 적지 않다. 1)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라. 2) 중복을 피하라. 3) 호응이 중요하다. 4) 피동형으로 만들지 마라. 5) 단어의 위치에 신경 써라. 6) 적확한 단어를 선택하라. 7) 단어와 구절을 대등하게 나열하라. 8) 띠어쓰기를 철저히 하라. 9)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말로 바꿔라. 10) 외래어 표기의 일반원칙을 알라.

물론 모든 원칙이 그런 것처럼 이 또한 융통성을 갖고 수용해야 하며,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례별로 달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홉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주



의가 요구된다. 위 책의 글쓴이는 어려운 한자어보다 순 우리말이 알기 쉬우며 글도 부드럽게 만든다고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이론적 개념(concept)이 한자어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 원칙을 교조적으로 이해할 경우 자칫 반지성주의적 편향을 초래하기 쉽다. 게다가 최근 중·고등학교 한자·한문 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학생들의 어휘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글쓰기교실을 이용하는 상당수 학생이 적절한 한자어를 선택·구사하지 못해 간결한 문장 표현에 곤란해하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문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한자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한자사용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위 책의 글쓴이 또한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이며, 풍부한 어휘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한자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대전제를 명시하고 있다.